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3년 7월 2일 (첫째 주일)

성경본문 : 레위기 23장 15-21절

설교제목 : “오십 일을 계수하여”

유대인이 삼대 절기가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입니다. 맥추절은 여러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초실절은 첫 보리 수확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 초실절부터 날자를 카운팅합니다.(15절) 카운팅 해서 일곱 안식일이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오십일을 계수하라고 합니다.(16절) 바로 50일째 되는 날이 맥추절입니다. 이 날이 50일이라는 의미에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맥추절을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맥추절에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고 합니다.(16절) 맥추절은 그해 첫 수확한 밀 추수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맥추절 소제의 특징이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 2개를 드립니다.(17절) 소제 제사는 누룩을 넣어서는 안됩니다.(레2:11) 그런데 맥추절 소제는 누룩을 넣어 유교병을 드립니다. 더불어, 18-21절까지는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위해 드려지는 제물과 그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레위기 규례가 신명기에서는 다르게 선포됩니다. 신명기 율법에는 칠칠절 즉 맥추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신16:10) 레위기는 제물의 제사로 감사하는 것이고, 신명기는 자원하여 힘이 닿는대로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왜 맥추절을 지켜 감사해야만 했습니까? 맥추절은 밀 수확에 대한 감사절기인데, 단지 밀 수확에 대한 감사가 목적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초실절과 오순절은 한해 농사에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비를 동반한 차가운 북서풍과 사막의 열풍을 동반한 뜨거운 남동풍이 교차로 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대개 한해의 농사는 10월 초막절이 지나서 이른 비가 오면 쟁기질을 하고 씨를 뿌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 첫 보리 수확이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한 달 반 정도가 지나서 밀을 수확하고, 다음으로 나면 포도를 수확하고, 그 다음 올리브를, 다음으로 석류를 다음으로 대추야자를 수확하고 무화과를 수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칠칠절 기간 동안에 처음에는 비를 동반한 차가운 북서풍이 불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를 동반한 북서풍이 전분이 많은 보리와 밀을 영글게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그 다음에는 뜨거운 남동풍이 불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과실나무에 꽃가루가 날려서 꽃봉우리가 열리게 됩니다. 따라서 포도를 시작해서 과실수가 열매맺기 위해서는 남동풍이 불어야 합니다. 따라서 첫 주 동안에는 북서풍이 불고, 나머지는 6주 동안은 남서풍이 불면 가장 좋은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가나안 원주민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나안 원주민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잡신을 믿는 다신론자들입니다. 그들은 농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첫 주에는 북풍의 신에게 비를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뜨거운 바람을 달라고 남풍의 신에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 8:8에 보면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밀과 보리는 곡식이고, 나머지는 과실입니다. 본문에서 꿀은 벌꿀이 아니라 대추야자입니다. 이러한 신명기 8장의 열매는 무엇의 결과입니까? 신명기 6장의 말씀에 나옵니다. 신명기 6:3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러한 소산물을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주시는 결과인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얻어지는 열매

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맥추절의 감사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감사가 196번 언급됩니다. 구약에는 132번, 신약에는 64번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77번이 시편에 나옵니다. 신약성경에 48번이 바울 서신에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자는 다윗이고, 신약에서는 바울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감사는 단순히 환경의 열매가 아닙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고, 약 15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늘 사울과 그의 군대의 추격의 위험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자기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다윗이 감사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신약에서 바울의 인생 역시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윗과 바울이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넘치는 감사의 전제는 믿음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골2:6-7) 넘치는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시편이 23편입니다. 다윗은 다 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23: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떻게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까? 시편 23편 1절이 답입니다. 시23:1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이 믿어지면 끝입니다. 따라서 내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에 있어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면 끝입니다. 아무리 푸른 초장과 설만한 물가에 있어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삶에 7개의 소산을 얻지 못해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굳건히 믿고 있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7개의 소산물을 다 얻어도, 감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넘치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어떤 삶의 결과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합3:17) 상반기 동안 내가 원하는 소산을 얻었던 얻지 못했던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4복음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패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요11:41에 보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다라고 하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하셨습니다. 내 삶에 주어진 기적이 감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가져옵니다. 오늘 내 삶이 죽음과 같은 현실입니까? 무엇인가 부족한 삶입니까? 그 삶의 자리에서 감사를 선포해 보십시오. 죽음과 같은 현실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부족한 삶에 말로 다할 수 없는 채워짐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감사의 회복을 통해 삶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맥추절을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레 23:15/레23:16)
- 2) 농경사회에서 초실절과 오순절 사이의 50일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맥추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주신 감사의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구역원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